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위로 받게 하시네

2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3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 담당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11/14(토)	11/16(월)
이범우 안수집사	양용식 안수집사	이경승 안수집사	최병호2 안수집사	나영진 안수집사	조병훈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11월 13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64장	다 같 이
기 도		최병호2 안수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19장 14~20절	인 도 자
찬 양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새벽찬양대
설 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6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9:14~20>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참고 성경 구절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1월 13일(금)

하나님, 히스기야가 두려움의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 놓았듯이, 우리도 마음 깊이 접어 둔 염려와 아픔을 주님 앞에 펼쳐 놓게 하옵소서. 눈물로 지새운 밤을 아시고, 말이 되지 못한 기도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는 응답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시간을 맡기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새문안교회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은 한결같았습니다. 특별히 내년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며, 헌당과 모든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길을 열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삶의 무게로 지친 가정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지친 몸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건강으로 붙드시고,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주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하루입니다. 자신의 아픔조차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고통 받는 이웃 곁에 머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는 이 땅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을 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